

戰後 日本經濟의 分析

——成長要因을 中心으로——

曹 圭 河*

1. 매크로計數로 본 日本經濟

3. 우리經濟와의 比較

2. 日本의 特質과 興件

1. 매크로計數로 본 日本經濟

戰後日本經濟는 다음의 세 時期로 區分할 수 있다.

(1) 敗戰直後の 復興期(1945~55 年)

(2) 高度成長期(1955~70 年頃까지)

(3) 安定成長調整期(1970 年代)

復興期는 經濟成長率은 높았지만 國民의 全般的인 生活水準이 극히 낮았던 時期로서, 經營收支赤字・失業・인플레이의 三重苦에 시달렸던 것이 特色이었다.

이어 高度成長期에는 成長率이 점차 높아지면서 生活水準도 向上되었고 國際收支의 均衡과 完全雇傭을 달성한 가운데 物價上昇率은 완만해졌다. 이 期間에 技術革新이 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으로 광범한 分野에서 進展했고 양성한 「슈페터」的 企業家精神을 밑받침으로 하여 經營合理化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70 年代初 日本列島改造論에 닉슨・쇼크, 石油危機 등이 겹쳐, 圓貨의 評價切上, 인플레이의 進展, 失業의 增加, 經常收支의 惡化로 成長率이 半減된 가운데 安定成長을 향한 調整期에 들어갔다. 다만 日本經濟는 오

*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委員

늘날의 世界的인 不況下에서도 다른 先進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良好한 經濟의 成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表1〉은 敗戰後 日本經濟의 매크로計數(The great ratios)를 5年마다 나누어 본 것이다.

〈表 1〉 戰後 日本經濟의 概要

	單位	1945~50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經濟成長率	%	9.4	10.9	8.7	9.7	12.2	5.1	5.6
物價上昇率	%	44.4	6.3	1.5	6.1	5.4	11.5	5.3
失業率	%	—	1.7	2.0	1.3	1.2	1.4	2.1
國際經常收支	百萬弗	634	524	115	△1,358	6,201	6,912	1,280
貿易收支	百萬弗	△939	△1,963	468	1,955	13,626	26,990	10,815
成長의 背景		復興自立		技術革新 近代化	技術革新 近代化	大型化	圓貨切上 石油危機	調整→ 安定成長
成長의 條件	物價	戰後 인플레이션	動亂 플레이션	安定	生産性 差인플레이션	隔斷 인플레이션	輸入 하이퍼·플레이션	安定 인플레이션
	勞動力	과잉	과잉	과잉	不足	不足	과잉	균형
	國際收支	赤字(援助·特需)	赤字	균형	균형	黑字	黑字	동반

資料：香西泰「高度成長の時代」p. 2.

(1) 限界資本係數와 投資比率

이같은 빠른 戰後復興과 四半世紀에 걸친 高度成長의 要因은 무엇인가. 「해로드·도마」의 定式에 따르면 經濟成長率(g)은 投資比率(s)을 資本係數(c)로 나눈 數值이다($g = \frac{s}{c}$). 즉, 資本係數가 낮으면 投資比率이 낮아도 成長率은 높아진다.

이 定式에 따라 各時期의 成長率·資本係數·投資比率을 求한 것이 〈表 2〉이다.

놀라운 것은 復興·自立期인 1945~55년까지의 限界資本係數가 1 또는 1 以下로 극히 낮다는 事實이다. 이렇게 낮은 理由는 敗戰前에 형성된

〈表 2〉 成長率・投資比率・資本係數

	1945~50	1950~55	1955~60	1960~65	1965~70	1970~75	1975~80
經濟成長率	9.4	10.9	8.7	9.7	12.2	5.1	5.6
投資比率A	9.3	7.9	11.4	14.8	18.1	18.2	17.1
" B	8.3	10.8	16.5	18.5	18.5	17.8	14.7
資本係數	1.0	0.7	1.3	1.5	1.5	3.6	3.1
相對價格	0.89	1.37	1.45	1.25	1.02	0.98	0.86

註：投資比率A：民間企業設備投資÷GNP, 1945~50年은 (民間住宅+民間企業設備投資)×2/3, 實質值(1970年價格)

B：同上名目值

資本係數=投資比率A÷經濟成長率

相對價格=投資比率B÷投資比率A=投資디플레이터÷GNP 디플레이터

資料：前掲書, p. 4.

資本蓄積이 이미 상당한 水準에 있었으므로, 補修 또는 原資材의 投入을 조금만 增加시켜도 生産指數의 上昇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美國과의 戰爭, 敗戰으로 日本의 戰爭被害는 船舶이 80.6%에 達한데다 海外로부터의 原料輸入 中絶과 空襲으로 生産力이 低下된 破壞적인 打擊

〈表 3〉 太平洋戰爭에 의한 國富被害

(敗戰時價格, 100萬圓)

	被害額	被害前 國富	被害率	終戰時 殘存國富	1935年 國富	增加率
建築物	22,220	90,435	24.5%	68,215	76,275	△10.6%
工業用機械器具	7,994	23,346	34.2	15,352	8,501	80.6
船舶	7,359	9,125	80.6	1,796	3,111	△42.3
電氣·가스設備	1,618	14,933	10.8	13,313	8,987	48.1
鐵道·車輛	1,523	15,415	9.8	13,892	13,364	4.0
電信·電話·水道	659	4,156	15.8	3,497	3,229	8.2
生産財	7,864	32,953	23.8	25,089	23,541	6.6
家具·家財	9,558	46,427	20.5	36,869	39,354	△6.6
기타	5,483	16,340	33.5	10,857	10,389	4.5
合計	64,278	253,130	25.3	188,852	186,751	1.1

註：直接被害로는 空襲, 艦砲射擊에 의한 것, 間接被害로는 廢化·疎開·補修不足等에 의한 것.

資料：經濟安定本部「太平洋戰爭による我國被害綜合報告書」,
中山伊知郎編「日本の國富構造」.

〈表 4〉 敗戰時の 生産能力

	1944年前 最 高	45.8.15 能 力	殘 存 率 (%)	1941年末	增加率 (%)
水力發電(千kw)	6,074	6,233	102.6	5,363	116.1
普通鐵鋼材(千 t)	7,998	8,040	100.5	7,506	107.1
알루미늄(月 t)	11,100	8,350	75.2	7,240	115.3
工作機械(t)	190	120	63.1	110	109.1
石油精製(千 kl)	3,739	1,443	38.5	2,359	61.2
비누(千 t)	278	99	35.9	278	54.5
綿스紡(百萬鍾)	13.8	2.8	20.2	13.8	20.2
綿織機(千臺)	393	123	31.4	393	31.4
自轉車(千臺)	3,600	720	20.0	2,880	25.0

資料：前掲書

을 받은 듯한 印象을 주었지만 被害率은 工業用機械器具 34.2%, 生産財 23.8%, 鐵道·車輛 9.8% 등 總平均 25.3%로서 75%에 가까운 國富가 남아 있었다. 〈表 3〉·〈表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被害額의 總額은 戰爭중에 축적된 國富보다 조금 적어 敗戰時の 國富는 戰前最高인 1935년에 비해 1.1%增加된 1,888億 5千圓(經常價格)이나 축적되어 있었다. 被害는 消費財生産設備쪽이 컸고 重化學工業設備은 오히려 開戰前 水準을 웃돌고 있었다. 日本은 이 國富를 밑천으로 復興에 착수할 수 있었다.

復興期の 個人貯蓄率은 오히려 마이너스로서 '46년에는 △3.4%, '49년에는 △8.3%였기 때문에 投資財源은 占領國인 美國의 援助에 대부분을 依存하고 있었고 所要外貨는 美國援助와 韓國動亂에 따른 「特需」¹⁾에 크게 依存하고 있었다. '46~'52년까지의 美國援助는 貿易收支赤字보다 훨씬 많은 21億 1千 4百萬弗에達했고, '50~'55년까지 6年동안 「特需」는 35億 2千 7百萬弗에 이르렀다. 이 期間의 輸入總計가 10億 3千餘萬弗인 것을 감안하면 韓國戰爭에 의한 「特需」가 日本經濟의 復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特需」란 韓國戰에 參加한 UN軍의 財貨·用役에 대한 特別需要를 略稱한 것이다.

高度成長期の 限界資本係數는 國際比較로는 아직도 相對的으로 낮은 2 以下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經營合理化와 技術進步速度가 빨라 企業이 보다 合理化되어 갔기 때문이다. 限界資本係數가 이같이 比較的 낮은 水準에 머물러 資本의 効率が 좋았다고는 하지만, 높은 成長率을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投資가 지속됐기 때문이었다. 이 高率의 投資比率 維持를 위해, 또는 投資와 關聯하여 企業・家計・政府가 어떻게 對應했는가라는 問題가 바로 高度成長의 要因을 分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70 年代에 들어와 投資比率이 약간 떨어진 한편 限界資本係數는 3 以上으로 歐美水準과 같아져 결국 成長率이 半減돼 버렸다. 이것은 石油事態로 인한 世界的 不況으로 設備稼動率이 低下된 結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更新投資比重의 増大, 省에너지投資, 公害防止投資의 増加 등에도 일부 基因하였다.

(2) 勞動投入과 生産性上昇

經濟成長率은 勞動投入의 側面에서 보면 勞動力增加率에 生産性上昇率을 더한 것이다.

'60 년까지 就業者의 增加率은 年率 2% 以上으로 높았고 '60 年以後의 高度成長期에도 2%에 가까운 增加率을 보였으나, 그보다도 주목할 점은 勞動力의 增加率보다 生産性上昇率이 3 倍에서 5 倍, 심할 때는 10 倍까지 높았다는 사실이다. 즉 生産性上昇이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主導했다는 점이다.

이 生産性向上은 技術革新이 主導한 가운데 勞動力의 質이 向上되는 한편 資本裝備率의 上昇, 經營의 近代化, 大型化에 依한 規模經濟의 實現으로 이룩되었다. 이 生産性向上의 要因이 바로 日本經濟成長의 要因이며 이를 위해서 産業勞動者들, 企業, 政府 등이 어떻게 對應하였는가를 分析하는 것이 勞動과 生産性的 두 成長要因에서 본 高度成長 要因分析이 될 것이다.

生産性向上은 製造業의 寄與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非工業部門에서 工業部門으로의 勞動力移動, 工業部門의 比重増加, 그중에서는 勞動集約

〈表 5〉 勞 動 生 產 性

(單位: %)

	1945~50	1950~55	1955~60	1960~65	1965~70	1970~75	1975~80
實 質 成 長 率	9.4	10.9	8.7	9.7	12.2	5.1	5.6
就業者增加率	2.3	2.7	2.2	1.7	1.8	0.4	1.2
生産性上昇率	7.1	8.2	6.5	8.0	10.4	4.7	4.4
製 造 業	—	12.0	9.6	7.9	12.3	2.0	7.0

註: 製造業生産性上昇率 = 鑛工業生産增加率 - 製造業就業者增加率

資料: 香西 泰「高度成長の時代」, p. 5.

의 産業의 資本集約的 産業으로의 轉換 등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의해서도 촉진됐다.

日本の 勞動生産性은 他先進國에 비해 현저히 높은 比率로 신장돼왔다.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期間에 日本은 約 4.5 倍, 西獨·프랑스·이탈리아가 約 3.5 倍 强, 美國·英國이 約 2 倍 弱의 신장률을 보였다.²⁾

이같은 生産性上昇率의 急伸張으로 日本의 製造業 勞動生産性은 1980 年을 前後해서 他先進國을 앞지르게 됐다. 勞動生産性的 國際比較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農業分野를 제외한 化學·石油製品, 一般産業機械, 自動車, 家電製品, 精密機械, 鐵鋼 등의 産業에서는 美國의 水準보다 높은 生産性を 갖게 됐다. 즉 敗戰當時의 生産性水準은 他先進國에 비해 극히 낮았지만 그동안 他先進國에 비해 높은 伸張率로 向上되어와서 絶對値로 보아서도 이제는 製造業에 있어서는 他先進國에 비해 같거나 앞지르게 된 것이다.

(3) 成長會計로 본 要因分析

다음 〈表 6〉는 日本의 한 經濟學者가 成長會計로 본 成長要因을 分析하여 試算한 表이다.³⁾

그는 分配率을 資本 3, 勞動 7 로 假定하고 「資本의 分配率 3×資本蓄積의 增加+勞動分配率 7×勞動投入의 增加」分을 計算하여 이것과 成長率

2) 日本 通產省「通商白書」1980 年.

3) 香西泰·土志田「經濟成長」.

〈表 6〉 成長要因의 分析(試算)

(單位: %)

	1955~60	1960~65	1965~70	1970~75	1975~79	1955~70	1970~79
成 長 率	8.7	9.7	12.2	5.1	5.9	10.2	5.4
勞 動 力	2.4	0.8	1.3	△0.3	1.5	1.5	0.6
就 業 者	2.2	1.7	1.8	0.4	1.2	1.9	0.8
勞 動 時 間	0.8	△1.0	△0.5	△1.7	0.7	△0.3	△0.6
勞 動 的 質	0.4	0.4	0.6	0.9	0.2	0.5	0.6
資 本	4.0	5.3	5.4	3.7	1.9	4.8	2.9
資 本 蓄 積	7.4	11.2	12.7	11.1	6.4	10.4	9.1
資 本 的 質	5.9	6.5	5.4	1.2	0.0	5.7	0.7
中立의 技術進步	2.3	2.4	5.5	1.7	2.5	3.9	1.9

註: 勞動 7 · 資本 3 의 分配率을 假定.

資料: 前掲書, p. 7.

의 差를 中立의 技術進步로 생각했다. 勞動에는 就業者의 單純한 增加만이 아니라 勞動時間, 敎育年限등을 包含한 勞動의 質을 포함시켜 생각했고, 資本에는 資本의 蓄積 외에 그 資本의 質도 고려했다.

이 計算·分析結果로 日本의 高度成長이 急速한 資本蓄積과 技術進步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資本蓄積을 가능하게 하는 高貯蓄과 그리고 技術進步·革新에 의해 日本經濟가 成長해 왔음을 알 수 있다.

(4) 需要項目의 變化

지금까지는 주로 供給의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成長要因을 需要面에서 살펴본 것이 〈表 7〉이다. 復興期의 初盤에는 그동안 막혔던 輸出이 平和回復과 함께 차차 늘어나면서 年率 99.5%의 增加率을 보였고, 전쟁중의 극단적인 耐乏生活이 끝남에 따라 일어난 旺盛한 消費意欲에 밀려 民間最終消費가 10.2%, 政府最終消費가 13.4%의 增加率을 보였다. 즉 輸出과 消費가 需要增加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高度成長期에서는 民間·政府의 最終

〈表 7〉 需要項目別總支出의 增加率

(單位: %)

	1945~50	1950~55	1955~60	1960~65	1965~70	1970~75	1975~79
民間最終消費	10.2	9.9	7.7	8.3	9.7	6.0	4.9
民 間 住 宅	1.9	15.9	14.5	17.4	13.7	6.2	1.9
民間企業設備		8.6	22.6	8.7	22.8	0.9	7.3
政府最終消費	13.4	2.4	2.9	7.1	5.1	5.6	4.2
公的資本形成	△9.2	23.3	13.8	16.0	10.8	6.7	7.7
輸 出 等	99.5	13.9	12.3	14.9	15.7	11.8	10.3
(控除)輸入等	25.1	18.1	16.9	12.5	16.6	6.8	9.5
國民總生產	9.4	10.9	8.7	9.7	12.2	5.1	5.9

資料: 日本銀行「國民所得統計」

消費增加率이 成長率以下로 떨어지면서 民間企業設備, 公的資本形成등이 폭발적으로 增加했다. 民間設備投資는 國際收支방어라는 至上目標에 따라 赤字 기미일때는 緊縮을, 黑字기미일때는 완화하는 財政金融政策에 의해 5年을 周期로 한 高低의 曲線을 이루며 進행됐고, 高度成長過程에서는 公的 資本形成・住宅投資가 民間設備投資와 正反對의 傾向을 가진 사이클을 보이고 있었다.

輸入은 '50年代의 合理化投資를 위한 대폭적인 資本財導入時期를 제외하고는 거의 輸出增加率보다 낮은 增加率을 보여 需要增加率을 減少시키는 逆作用을 하지 않았다. 民間住宅도 復興期の 初期를 제외하고는 15%內外로 增加하여 需要를 뒷받침했다.

安定調整期에는 消費가 약간 꺾이는 가운데 民間住宅, 公的資本形成은 半減되는 한편 輸入이 현저히 떨어졌고, 民間投資設備投資는 거의 增加되지 않았다. 이 期間에 需要를 뒷받침한 것은 國內需要가 아니고 輸出需要였다.

高度成長期는 高投資・高成長의 時代라는 點에서 復興期 또는 調整期와는 다른 特色을 갖고 있다. 復興期에는 資本係數가 낮아 高度成長이 가능했지만 調整期에는 資本係數가 높아진 가운데 需要의 減退로 低投資・低成長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石油事態가 일어나기까지 두자리수의 輸

出增加率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韓國戰爭과 越南戰爭 그리고 世界的 好況에 따라 海外需要가 增加한데다, 擴大一路에 있던 世界貿易市場에 國內의 生産性向上을 배경으로 國際競爭力을 強化한 日本商品이 世界市場에 진출한 결과였다. 石油事態 후에는 賃金抑制과 省에너지技術革新으로 두 자리수의 輸出增加率을 유지하여 內需가 極減된 상태하에서도 海外需要에 의한 成長을 지속함으로써 國際貿易 마찰을 일으키게 됐다.

2. 日本的 特質과 與件

이상 戰後日本經濟의 高度成長 모습을 매크로計數로 조감해 보았다. 결국은 高度成長要因이 다음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 ① 既存國富에 덧붙인 資本의 量的增加와 質的向上
- ② 勞動의 量的增加와 그 勞動生産性的 向上
- ③ 技術進步와 革新

이 세 가지 要因이 어떻게 增加하고 向上되고 進步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結付되고, 結付될 수 있었으며, 어떤 與件下에서 이루어졌는가. 특히 이와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 日本의 두드러진 文化的·社會的 特質과 與件은 어떤 것인가를 本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高貯蓄과 設備投資熱

日本의 高度成長을 가능하게 한 要因중의 하나가 急激한 資本蓄積이라면 이 資本蓄積을 가능하게 한 것이 國民의 높은 貯蓄率이었다. 主要國의 個人貯蓄率과 비교해보면 <表 8>과 같이 日本이 일관해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貯蓄率이 높았는가. 住宅이 不足하기 때문에 將來의 住宅購入을 위해 貯蓄한다는 說, 社會保障制度가 뒤떨어져 있어 老後나 病에 걸렸을 때에 對備하기 위해서라는 說, 敎育費가 높아 子女의 敎育을 위해 貯蓄이 필요하다는 說, 또 賃金上昇率이 컸고 急激한데 비해 消費增加率이

〈表 8〉 主要國의 個人貯蓄率

(單位: %)

	1955	1960	1965	1970	1975
日 本	13.4	17.4	17.5	20.7	24.9
韓 國	4.1	-2.2	0.2	5.8	5.5
英 國	1.0	5.1	6.1	5.8	11.2
美 國	5.8	5.0	6.2	8.2	7.9
西 獨	13.4	14.9	15.9	16.4	14.5
프 랑 스	7.2	12.0	12.8	13.8	12.3*
이 탈 리 아	—	—	16.7	16.1	19.4**

註: 1. 可處分所得에 對한 貯蓄의 比率

2. *1974 年, **1973 年

資料: 金森久雄「入門日本經濟」,
韓國銀行「韓國의 國民所得」

鈍했기 때문이라는 說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日本人의 儉素하고 健全한 生活觀・物質觀에 기초한 生活態度가 高貯蓄의 原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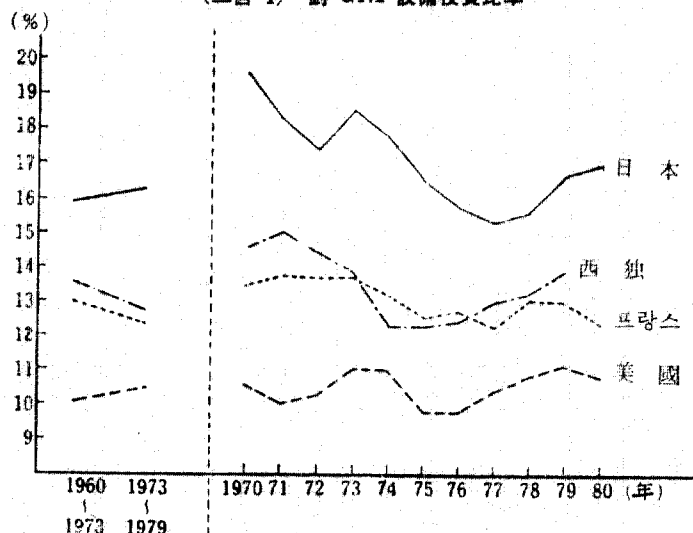
個人貯蓄뿐만 아니라 企業의 貯蓄率도 他國에 비해 높았다. 이 社內 留保率이 높은 것은 勞動分配率이 戰後 일관해서 他先進國이 80%였는데 비해 日本은 70%정도밖에 안된 한편 企業이 取得하는 30%중에서 株主에 對의 配當도 他國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勞動分配率과 株主配當이 低率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企業의 性格이 株主 등 資本家에 의해 強力히 支配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4節 企業의 日本的 性格과 特色 參照). 또한 政府의 貯蓄率도 높았다. 政府가 稅金 등으로 얻은 歲入에서 公務員의 봉급등 그밖의 支出을 감한 나머지 部分이 政府貯蓄인데 軍備나 社會保障支出이 적었기 때문에 政府의 貯蓄率도 높을 수 있었다.

이와같이 個人, 企業, 政府의 높은 貯蓄率 때문에 高度成長期에는 日本 全體로 보아 國民總生産의 最低 30%에서 40%까지가 資本蓄積에 充當돼 왔다. 美國이나 英國이 約 20%, 우리나라의 경우 '60年代에는 5%未滿, '70年 後半에 가서야 25% 內外였던 것을 생각하면 日本의 外債없는 高

度成長이 이 高貯蓄에 연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高貯蓄은 貯蓄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高度成長의 要因이 될 수 없다. 그 貯蓄을 活用하는 需要가 없으면 오히려 成長을 저해한다. 이 高貯蓄을 企業家들이 새로운 技術革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活用함으로써 設備投資 즉 需要量 增大시켜왔다. 高度成長期의 初期에 投資가 投資를 유발하여 1955年에서 '60年사이에는 年平均 25.8%의 유례없는 높은 設備投資 伸張率을 보여 高度成長의 도약대가 마련됐다. 日本의 對 GNP 民間設備投資比率는 다음 그림과 같이 戰後 일관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은 設備投資가 또한 日本企業의 急速한 生産性增加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動機를 보면 戰後에서 '70년까지는 國內外의 需要增加에 따른 供給力增加를 위한 投資가 60% 以上이었던데 비해 그후에는 점차 需要增加에 의한 投資는 줄어들어 '80년에는 23.7%로 하락하고 그대신 省力化, 合理化, 設備更新을 위한 投資가 65% 以上을 차지하게

〈그림 1〉 對 GNP 設備投資比率



資料: 日本經濟企劃廳「經濟白書」1981年.

됐다.

企業의 設備投資는 이와같이 왕성하여 企業의 貯蓄 즉 内部留保率을 초과하여 왔다. <表 9>는 家計, 企業, 政府, 海外部門별의 貯蓄과 投資를 나누어 본 것이다. 家計部門은 貯蓄(S)이 投資(I)를 능가하는 대신 企業部門은 I가 S보다 많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家計部門에서 초과된 貯蓄은 金融機關을 통해 企業이 借入하여 投資에 돌린 것이다. 즉 個人의 높은 저축이 日本經濟發展의 주요한 要因이 됐고 또한 高度成長의 活力素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企業의 借入에 의한 설비투자로 企業의 財務構造는 더욱 나빠져 自己資本比率이 製造業全體로보아 '80年の 경우 20.9%로서 美國의 49.6%, 西獨의 28.5%에 비해 상당히 낮은 한편, 負債比率은 378.8%에 이를 정도로 他人資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9> 部門別 貯蓄·投資狀況

(單位: %)

	家 計			企 業			政 府			海外
	貯蓄 (S)	投資 (I)	S-I	貯蓄 (S)	投資 (I)	S-I	貯蓄 (S)	投資 (I)	S-I	
1965~69年	15.3	7.4	8.0	13.4	21.7	△8.4	6.6	8.1	△1.5	△0.8
1970~74年	16.9	6.3	10.5	13.5	24.9	△11.4	6.6	6.0	0.7	△0.7
1975~78年	19.8	9.6	10.2	9.6	15.4	△7.0	2.3	6.4	△4.0	△1.0

註: 1. 對 名目 GNP 比,

2. 海外는 債務에 대한 純増만 計上

3. 여기서의 家計는 自營企業을 포함하며 企業은 法人企業만을 말함.

資料: 日本經濟企劃廳「國民經濟計算(制度部門別資本調達計定)」

그러나 企業의 높은 設備投資의 결과로 設備의 平均年齡은 10年밖에 되지 않아 美國의 20年, 西獨의 12年에 비해 아직 젊다는 것이 特色이다.⁴⁾ 또한 敗戰直後에는 資本裝備率이 美國의 몇割밖에 안됐던 것이 '68年에는 主要業種의 主要企業만을 살펴보면 日本을 100으로 했을 경우 美國 120, 西獨 58, '77년에는 日本 100에 對해 美國 79, 西獨 34로 逆轉

〈表 10〉 自己資本・負債比率 國際比較

(單位: %)

年 度	自 己 資 本 比 率			負 債 比 率		
	日 本	美 國	西 獨	日 本	美 國	西 獨
67	24.3	58.2	39.1	311.1	71.9	155.5
70	21.5	53.8	35.6	365.9	86.0	180.6
75	16.6	53.1	30.6	502.0	86.2	227.3
80	20.9	49.6	28.5	378.8	101.5	250.3

資料: 日本銀行「國際比較統計」1982 年.

또는 격차가 넓어졌다.⁵⁾ 이와같은 새로운 設備投資가 日本의 資本係數를 낮추고 資本裝備率의 제고가 勞動生産性을 向上시켜 成長을 촉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2) 강한 先進化意欲과 좋은 勞使關係

戰後 日本의 中堅勞動人口는 2次大戰, 소위 日本人이 말하는 太平洋戰爭에서의 敗北라는 歷史的 經驗을 통해 강한 先進化意欲을 갖고 있었던 것이 特色이었다. 戰爭에는 비록 敗北했지만, 더우기 그 戰爭敗北의 決定的原因이 美國의 強大的 物質力 즉 經濟力과 技術力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들이 經濟革命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은 武裝解除당한 日本國民의 理性的 選擇이었다. 戰爭經驗을 통해 ① 集團規律이 強化되었고 ② 友愛・平等등 戰士共同體의 體驗을 共有하게 되었으며 ③ 飢餓와 絶對的 窮乏에 의해 物質의 소중함을 알게 됐는가하면, ④ 生命을 건 戰爭을 통해 몸소 느낀 先進美國의 技術水準과 生活水準 ⑤ 敗戰事實로 強化된 日本國民全體의 共同運命體로서의 自覺 ⑥ 占領軍을 통한 先進美國文化와의 大衆的 接觸 ⑦ 先進美國經濟力의 再評價와 反省을 통해 先進國을 뒤따라 잡으려는 産業勞働者들의 意欲이 日本高度成長의 또하나의 起爆劑였다고 할 수 있다. 日本國民으로서의 對外戰爭에서 처음 겪는 戰爭敗北와 被占領이었

4), 5) 三上辰喜「データが言う日本企業高度生産性の秘密」.

고 그 原因이 經濟的 後進性이었음을 발견함으로써 競爭意識이 經濟戰爭으로 意識되어 高度成長으로 줄달음 쳤다는 說明도 있다. 사실 戰後日本 經濟의 高度成長을 담당한 役軍은 職場에서의 中堅技能勞働者였고 그들은 곧 除隊下士官들이었다. 이들은 日本軍隊의 傳統的인 集團規律, 內務班生活, 克己의 정신으로 工場勞働者들을 이끌어 나갔고, 한편 새로이 주어진 自由・平等・開放의 道와 미묘한 衡平을 이루면서 市場機構의 效率을 높였다고 한다.⁶⁾ 近代戰에 投入된 下士官들이 除隊 후 平和로운 時代의 産業勞働者로서 새로운 技術을 消化・改良하고 철저한 管理와 規律로 高品質의 商品을 生産해 냈던것은 이것이 敗戰日本의 사는 길이라는 自覺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다. 이같은 大衆의 階級에서의 先進化意欲이 戰後日本의 高度成長을 떠받든 밑받침이었다. 經濟的 先進化만이 日本國民이 사는 길ियो, 敗戰이라는 國民의 受悔와 劣等感을 解消시키는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強力한 先進化意欲이 日本經濟를 高度成長케 한 데 크게 기여한 것은 反論의 여지가 없다.

이와같이 先進化意欲에 가득찬 勞働者들이 勞動의 質을 스스로 높여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勞動力이 相當한 水準의 質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의 높은 敎育水準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日本의 高校進學率은 現在 94%, 大學에의 進學率은 37.0%로, 이미 1950 年에도 15~64 歲의 人口중 高校 이상의 敎育을 받은 사람이 17.2%에 달했고 1970 年에는 43%에 이르렀다. 이중 大學 이상의 敎育을 받은 사람이 8.9%로 勤勞者의 一割에 가까운 比率이다. 이와같은 人的資源開發의 結果 産業界는 新技術에의 適應力이나 向上心이 풍부한 勞動力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現在 高校進學率은 英國이 30% 未滿, 프랑스가 70%, 西獨이 48%임을 생각하면 日本이 餘他先進國에 비해 얼마나 質이 높은 勞働者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은 美國보다는 약간 낮지

6) 並本信義「日本經濟一刀兩斷」.
香西泰「高度成長の時代」.

만 유럽의 餘他先進國에 비해 高校, 大學進學率 모두 훨씬 높다.

이들은 또한 日本社會 特有의 集團主義, 協力이라는 行動樣式과 慣行을 따르도록 敎育돼 있어 이러한 行動樣式과 慣行이 잘 지켜지고 있고 이것이 日本企業의 높은 生産性增加率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많은 部品을 組立・加工하는 오늘날의 近代企業에서는 勞動者들이 相互協力하여 各加工段階에서 맡은바 工程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음工程에서 일하기 쉽도록 배려하는 「和」가 全作業을 順調롭게 하며, 또한 商品의 高品質을 維持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면, 日本의 集團主義 意識과 行動은 勞動의 質을 총체적으로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學校敎育의 重點도 各學生間의 競爭이 아니라 協力和 協同, 그리고 共同運命體의 集團行動을 해갈 수 있는 협조심 배양에 두고 있는 日本人의 集團意識은 높은 規律속에서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다. 그들의 慣行과 行動樣式은 近代化에도 불구하고 溫存되고 있어 日本的慣行과 行動樣式이 오늘날에는 日本企業이 高度生産性を 보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勞動力은 또 좋은 勞使關係에 의해 그들의 能力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日本經濟의 強點이다. 日本의 勞使關係는 歐美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歐美의 企業이 勞使關係를 對立的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日本에서는 일반적으로 經營者도 종업원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經營者와 종업원과의 關係는 雙方間의 利害가 基本的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업원은 終身雇傭制下에서 개인의 이익이 企業의 發展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企業의 발전여부가 바로 자기의 一生을 좌우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 결과 ① 파업에 의해 企業이 입는 損失이 적고 ② 新設備, 新生産工程, 新技術導入에 대한 저항이 없으며 ③ 生産性向上의 범위내에서 임금상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生産性向上의 誘因이 작용하는 한편 ④ 會社幹部 중에는 勞組幹部出身者라도 배제되지 않으며 ⑤ 勞組의 형태도 직종별, 산업별이 아니라 企業內組合인 것이 特色이다.

日本の労働爭議를 보면 그 發生件數로나, 參加人員이나 爭議에 의한 損失日數로나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등 他先進國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또한 日本의 파업이 無計劃, 無秩序하게 행해지는 일은 例外的이고 事前通告에 따라 企業의 業務가 크게 혼란을 입지 않게끔 행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日本の労働者は 歐美와는 달리 일정한 직종에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會社의 필요에 따른 配置轉換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事業所間 配置轉換은 企業의 58% 정도가, 事業所內 配置轉換은 약 70% 정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트 등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나 新設備, 新技術導入이 용이하다.

日本企業의 賃金上昇은 生産性上昇率 범위내에서 억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의 더 많은 利潤을 위해 利潤을 分配하지 않고 設備増設에 投資하는 것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 日本의 勞使關係이다. 따라서 日本의 勞動分配率은 歐美의 그것보다 적으나 나머지 留保金은 再投資되어 더 많은 利潤을 내게 되므로 長期的으로는 歐美의 賃金上昇率보다 높아지게 되고, 日本全體로 보아 많은 投資가 이루어져 日本經濟도 成長하게 된다. 한편 労働者は 賃金上昇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利潤을 내기 위해 生産性向上에 박차를 가하여 온 것이다.

日本企業은 勞使關係가 對立的인 것이 아니므로 勞組幹部出身이라고 해서 그 會社의 重役이 못된다는 慣行이 없다. 젊은 社員시절에는 勞組幹部로서 일하고, 年輪을 쌓으면서 能力이 있고 기여를 많이 하게되면 重役으로 승진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1978年 現在 日本全重役의 15.5%가 勞組幹部出身이며 日本全企業의 36.1%가 한 사람 이상의 勞組幹部出身重役을 갖고 있다.

日本の 勞組組織은 그 企業에 종사하는 종업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企業內組合이다. 만일 파업등으로 그 企業이 倒産하면 勞組 자체도 없어지므로 勞組활동은 企業의 損失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企業 자체가 일본에서는 전종업원의 生活의 터전이므로 勞組활동도 오히려 企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生産性向上운동의 母體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좋은 勞使關係를 기반으로 日本에서는 他先進國에서 일반적으로 問題視되고 있는 缺勤率과 轉・離職의 増大, 근로의욕의 감퇴, 기업과 종업원의 利害對立 등의 경향이 극히 적다. 오히려 日本勞使間에는 勞使協議制가 정착되고있어 經營方針, 會社의 업적과 경리내용, 생산계획, 설비계획의 신설 및 변경, 노동시간, 임금체계의 개정, 인원정리, 고령화대책, 복리후생, 안전・위생등 광범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1950년부터 시작된 이 勞使協議制는 1980年현재 上場企業의 90%에 보급되고 있다.

(3) 활발한 技術革新

戰後 日本經濟의 高度成長過程은 一連의 技術革新(Innovation)過程이었다. 敗戰이 技術力의 差異에서 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近代戰을 수행할 만한 技術水準을 가졌던 日本은 戰後 탐욕스러운 정도로 歐美先進國의 技術을 이전・흡수하는 한편, 기존의 技術을 개량하여 生産合理化를 이룩해 나갔다. 그들은 移轉된 技術을 처음에는 單純모방하여 組立・加工하는데 活用함으로써 商品化해 나갔고, 이를 完全消化한 후에는 移轉技術을 創意的으로 모방・應用함으로써 코스트를 減少시키는가 하면 逆엔지니어링으로써 技術資本財를 복사해 나갔다. 이와같이 日本經濟의 技術革新過程은 外國移轉技術을 完全吸收・消化해 가는 段階에서 獨自的技術開發로 新製品을 開發해 가는 方式이었는데, 이는 不足한 國內資本蓄積의 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技術을 研究・開發함에 따르는 危險을 회피하는 현명한 方法이기도 했다.

戰後日本の 技術革新過程을 보면 現狀을 打破할만한 劃期的技術을 研究・開發한 實績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既存技術을 改良하는 비율은 日本이 世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1〉 日本이 먼저 實用·開發한 技術·商品의 例

電氣·電子	機械·鐵鋼	輸送機器	化學醫藥品
파라메트론 트랜지스터·라디오 電子顯微鏡 에사키다이오드 VTR 電卓 郵便自動區分機 트리니트론칼라 T·V 電子時計 캐쉬·디스펜서 電子빔 露光裝置 光纖維	胃카메라 自動焦點카메라 로봇 NC 선반 LD 轉爐 完全連續冷間壓延	新幹線制御技術 經濟船型 모타리·엔진 CVCC 엔진	비닐론 새醱酵法 구루타민·소다 카나마이신 完全순환법 尿素肥料 PNC 法 카프로락담 合成紙 炭素纖維

註: ☐ 안에 日本의 獨自開發品

☐ 없는 것은 他國에서 開發된 아이디어로 日本이 實用化한 것.

資料: 森谷正規「現代 日本産業技術論」을 참조하여 作成.

〈表 11〉은 日本이 먼저 實用했거나 開發한 技術 또는 商品을 찾아본 것이다. 日本이 獨自의로 開發한 것보다는 이미 他國에서 開發된 아이디어, 또는 基本技術을 日本이 導入, 實用化한 것이 越等히 많고 또한 그 製品들이 日本의 高度成長을 밀받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世界市場을 席捲한 電子卓上計算機(電卓), 트랜지스터·라디오, VTR, 칼라TV, 카메라, NC 선반, LD 轉爐, 經濟船型의 活用등 모두 外國에서 導入된 아이디어와 技術을 基盤으로 製品化에 성공한 例들이다. 새로운 商品뿐 아니라 既存商品의 原價節減, 品質向上을 위한 一連의 技術改良·革新에서도 日本은 성공을 거두었다. 不良率減縮, 原單位節減, 均等한 品質維持, 高品質化, 이를 위한 設備改善, 自動化, 省力化, 量產體制의 構築등 꾸준한 産業合理化·生産性向上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生産性向上의 一環으로 日本特有的

生産管理方式이 開發됐다. 한 例로 「도요다」자동차株式會社가 먼저 시작한 「看板方式」이라는 後工程引受量基準方式을 들 수 있다. 이는 後工程에서 사용할 中間生産品의 數量만큼만 前工程에서 生産하는 方式인데, 이 方式으로 在庫를 비롯하여 不必要部品을 生産調整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作業順序・準備管理方式의 改善으로 準備時間을 短縮시키는 「싱글 準備」라는 準備時間의 短縮운동도 있다. 나사못을 몇 번 돌려 연결했던 것을 한번에 끼워 고착시키게 한다든가 열 곳에 연결할 선을 하나 하나 연결해 왔던 것을 미리 열개선을 順序에 맞추어 고착시켜 놓음으로써 한 번에 열개선을 고착시키는 방식의 개발등이다. 이러한 生産管理方式의 開發로 인해 所要直接勞動時間의 短縮, 原單位의 改善, 品質向上, 그 결과로서의 生産性向上에서 다음 <表 11・12・13>과 같이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다.

<表 11> 生産性向上實例(所要 直接勞動時間)

(單位: 時間)

	1965年(A)	1978年(B)	B/A(%)
高 爐 鐵 (t 當)	0.35	0.12	34
小 型 自 動 車 (1 臺當)	60.8	20.4	34
綿 紡 績 業 (20 番手고리當)	26.8	13.2	49
시 멘 트 (t 當)	1.03	0.25	24

資料: 勞動省「勞動生産性 統計調査」

戰後 日本의 經濟成長에 있어서는 技術進歩가 크게 寄與했다는 점은 1章 3節에서 이미 보아온 바와 같지만 이를 國際比較해 본 것이 다음 <表 14>이다. 이 表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일단 技術寄與度の 역할을 나타내는 참고자료는 될 것이다. 이 표에서 日本이 韓國에 비해 월등하게 技術革新에 의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2〉 製造業의 美·日生産性比較

(日本=1.00)

	1955	1960	1965	1970	1977
精密機械	0.95	0.95	0.89	0.63	0.38
電氣機械	2.86	1.33	1.28	0.69	0.51
鐵鋼	2.96	1.90	1.77	0.81	0.67
輸送機械	3.00	1.80	1.32	0.73	0.73
纖維	3.02	2.66	2.64	0.72	1.29
化學製品	2.49	2.29	2.21	1.40	1.37
石油製品	4.51	3.16	2.32	1.65	1.50
一般機械	4.66	3.57	3.62	1.71	1.62
紙·펄프	4.27	3.47	3.38	2.11	1.88

資料: 1978年 11月, 人間能力開發センター에서 調査.

〈表 13〉 原單位の 改善

	原材料名	單位	'53年	'59年
高爐銑	코오크스	kg	838	634
(1t當)	鐵鑛石	"	1,630	1,541
알루미늄	보오크사이트	kg	2,280	2,290
(//)	電力	KWH	900	410
펄프 SP		m ³	4.73	4.38
(//)				
시멘트	石灰石	kg	1,277	1,220
(//)	吹入總熱量	1,000cal	1,738	1,562
貨物船	鋼材	kg	477	394
(GT當)				

資料: 産業構造審議會「産業合理化白書」

또한 日本이 우리 또는 他先進國에 비해 勞動生産性이나 總生産性, 增加率이 얼마나 높은가를 〈表15〉·〈表 16〉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生産性向上을 가능케한 것은 産業勞動者의 生産性向上을 위한 熱意와 함께 日本産業界와 政府의 技術開發·革新을 위한 노력의 결산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技術低位國이었던 日本이 이제는 얼마를 人力과 資本

〈表 14〉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技術寄與度

(單位: %)

	美 國 (1948~69)	프랑스 (1950~62)	日 本 (1953~71)	韓 國 (1966~76)
國民所得成長率을 100으로 보았을 때 技術의 寄與度	29.7	32.1	22.4	7.2

資料: E. Denison and W. Chung 「How Japan's Economy Grew So Fast」,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1977.

〈表 15〉 勞動生産性の 韓・日比較

	生産製品	單 位	生産所要時間(名・時)		比率(A/B)
			韓國(A)	日本(B)	
織 維	綿 紡	100kg	18.08	8.10	2.2
製 紙	종 이	톤	9.01	6.00	1.5
고 무	타 이 어	톤	50.79	28.04	1.8
化 學	苛性소다	톤	11.98	3.27	3.7
시 멘 트	시 멘 트	톤	1.02	0.26	3.9
1次金屬	可鍛鑄物	톤	137.62	36.82	3.7
機 械	배 어 링	1,000個	130.06	46.08	2.8

資料: 韓國生産性本部, 1979年 現在.

〈表 16〉 總生産性 年增加率 國際比較

(單位: %)

	1960~69	1970~77
美 國	3.4	2.3
英 國	4.3	2.1
프 랑 스	6.1	5.0
西 獨	5.9	5.7
日 本	13.1	4.2
韓 國	3.1	0.9

註: 韓國의 경우는 1966~71年과 1971~75年의 數值임.

資料: 金迪敎・孫讚鉉,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
Newsweek, June 4. 1979.

〈表 17〉 技術開發人力의 國際比較(1978年)

(單位: 名)

	韓 國	美 國	日 本	西 獨	프랑스	蘇 聯	이탈리아
研究員總數	14,749	595,000	273,102	100,372	67,981	1,314,000	31,388
韓國에 對한 倍 數	1	40.3	18.5	6.8	4.6	89.1	2.1
人口萬名當 研究員數	4.0	27.0	24.0	16.0	13.0	60.0	6.0
韓國에 對한 倍 數	1	6.8	6.0	4.0	3.3	15.0	1.5

註: 위의 統計는 프랑스(1977)와 이탈리아(1975)를 제외하고는 모두 1978年 기준임.

資料: 科學技術處「科學技術年鑑」, 1981,
日本科學技術廳「科學技術要覽」, 1981.

〈表 18〉 科學技術開發投資 國際比較(1979年)

	美 國	蘇聯 ¹⁾	日 本	西 獨	프랑스	韓 國
研究開發費						
金額倍數(韓國=1)	134.3	78.4	46.9	46.2	25.0	1
對 GNP 比率(%)	2.24	4.61	1.83	2.35	1.76	0.60
科學技術豫算						
金額倍數(韓國=1)	113.1	52.8	19.5	21.4	27.5	1
對 總豫算比率(%)	5.6	3.4	3.0	4.5	5.8	2.3

註: 1) 蘇聯의 경우는 對國民所得比率임.

資料: 科學技術處「科學技術年鑑」, 1980,
日本科學技術廳「科學技術白書」, 1981.

〈表 19〉 主要産業의 研究開發對 賣上高 比率

(單位: %)

	韓國(1979)	日本(1979)	美國(1977)	西獨(1975)
製 造 業 全 體	0.33	1.5	3.1	3.3
化 學 工 業	0.13	2.6	3.6	3.3
電 氣 機 械	1.52	3.6	6.3	6.7
精 密 機 械	1.58	3.0	6.1	4.5
一 般 機 械	0.55	1.9	1.5	3.1
自 動 車	—	2.4	3.1	2.9
航 空 機	—	—	13.0	44.0

註：國際比較上 研究開發費에 대한 定義가 달라서 韓國의 統計는 過大評價되었음. 자세한 內容은 李軫周, 「科學技術 主要統計作成指針 및 科學技術指標 開發에 관한 調査研究」, 1980 을 參照.

資料：科學技術廳「科學技術年鑑」, 1980,
日本科學技術廳「科學技術白書」, 1981,
日本科學技術廳「科學技術要覽」, 1981.

을 技術開發에 投入하고 있는가를 앞의 表들이 보여주고 있다.

(4) 企業의 日本의 性格과 特色

國民의 높은 貯蓄, 先進化意欲에 불타는 勞動力, 이것들을 基盤으로 이루어진 技術進步·革新을 組織하고 主導한 것은 企業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企業의 獨特한 性格과 特色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日本企業의 特性과 特色은 무엇인가. 歐美의 企業은 株主·資本家の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日本의 企業은 社會全體의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歐美의 企業은 株主 혹은 資本家の 經營支配力이 強하여 經營者의 業績評價는 株式配當率이 評價의 基準이 되고 있지만 日本의 企業은 株式配當보다는 從業員全體의 利益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느냐로 평가된다. 歐美의 企業이 經營者는 經營能力을, 勞働者는 勞動力을 제공하고, 그 代價를 받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日本의 企業은 創業者, 經營者, 管理者, 勞働者등 全體從業員이 한 家族으로서 같이 生活하는 共同體의 體로 생각한다.

日本에는 현재 한 自然人 또는 家族이 大企業을 支配하고 있는 意味에서 財閥이 거의 없다. 戰前의 三井, 三菱등 財閥은 敗戰直後 「맥아더」 美占領軍司令官에 의해 解體되었다.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 의해 그 당시 日本의 全株式會社 拂入資本金의 65.9%에 달하는 325 個社가 對象으로 指定되어 解體의 指示命令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중 18 個社가 解體되었지만 이후 財閥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러면 누가 企業을 所有하고 있는가. 日本의 경우 大企業이 上場하고 있는 「東證一部」 上場

企業의 株式所有狀況을 살펴보면 30% 以上の 株式을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企業은 하나도 없다. 또한 10% 以上の 株式을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企業은 「東證一部」上場企業의 3%밖에 안된다. 한편 個人株主건 法人株主건간에 한 大株主가 한 企業의 株式을 20%이상 갖고 있는 企業數는 全企業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는 大株主의 舍어가 20% 未滿이다. 이와같은 株式所有形態 때문에 한 資本家가 大株主로서 企業을 獨占支配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다. 또한 日本에서는 낮은 自己資本比率 때문에 株主權의 行使는 많은 間接的 制約을 받는다.

日本과 美國을 비교해보면 法人株主가 個人株主보다 비중이 높고 또 法人株主가 많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20〉 美・日持株現況

(單位: %)

		'50年	'65年	'70年
個 人	日	61	45	40
	美	—	71	72
法 人	日	39	55	60
	美	—	29	28

資料: 西山忠範「支配構造論」

이와같은 株主支配의 形骸化로 經營者에게는 配當壓力이 심하지 않아 賣上高利益率이나 配當率이 만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特色이다.

歐美의 企業은 企業利潤이 株式配當으로 株主에게 配分되지만, 日本의 企業은 株式配當을 企業經營을 위한 費用으로 인식하고 있어 健全大企業의 配當率은 企業利益과는 직접관계없이 그 당시의 借入金利水準을 약간 웃도는 水準으로 정해지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日本과 歐美의 企業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特色을 찾아볼 수 있다.

① 日本의 企業은 自己資本率도 적고 株主支配力이 强하지 않아 短期的인 株價動向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長期的의 眼目에서의 設備投資등을 해 갈 수 있으나 歐美의 企業은 그렇지 못하다.

② 日本의 經營者는 企業의 全從業員에 對해 責任을 지나, 歐美의 經營者는 株主에 依해 고용된 고용者로서 企業 또는 종업원보다는 株主에게의 責任을 重시한다.

③ 日本에서는 經營者를 査査하는 株主總會, 監査役, 公認會計士 등의 機能이 限定되어 있어 經營者의 自由의 폭이 넓으나, 歐美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와같은 日本의 經營에 依해 經營되고 있는 日本企業의 特征적인 勞務慣行은 歐美에서는 보기 어려운 終身雇傭制와 年功序列制이다. 이같은 勞

〈表 21〉 歐美・日 勞動行態比較

日	本	歐	美
① 士氣가 높다.		① 士氣가 낮다.	
② 品質, 設備改善등을 위해 自發的, 自主的인 노력을 기울인다. 勞働者가 innovation의 主役을 擔當하고 있다.		② 品質, 設備改善등은 技術者의 일이 고 오히려 勞働者가 工程管理에 介入하는 것은 禁止되고 있다.	
③ 能力開發을 위한 投資가 활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속련도가 높다.		③ 能力開發投資가 充分하지 않고 單能 工이 많다.	
④ 企業에 對한 귀속의식이 强하고 특정의 職종에 고정되지 않아, 配置轉換이 가능하기 때문에 技術革新에 對한 저항이 없다.		④ 職종을 바꾸기 어려워, 職종의 再編成을 수반하는 技術혁신에 저항이 크다.	
⑤ 정년퇴직까지 協力하여 전정력을 발휘한다.		⑤ 實力主義의 결과 早期에 少數의 엘리트와 競爭에 參加하지 않는 多數로 나뉘어 多數는 會社와 對立하는 勞動組合에 보호를 의존한다.	

務慣行에 따라 經營되는 日本企業에는 장기근속자의 구성비가 높다. 日本의 企業은 不況期에도 從業員의 解雇를 극력 피하는 한편 오히려 장기근속에 따라 賃金上昇率을 높게해 歐美의 企業에 비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격차를 크게 하고있다. 또한 그 企業의 幹部 즉 重役은 그 企業出身을 원칙으로 해 大企業重役의 78.3%가 그 會社出身인 것이 特色이다.

이와같은 勞務慣行下에서 勞動行態는 자연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인 바, 勞動者는 자기가 속한 企業에 모든 점에 있어 적극적인 반면 歐美의 勞動者는 주어진 일만을 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

企業의 意思決定方式도 日本은 밑에서부터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비해 歐美는 위에서부터의 指示・命令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日本의 노동자가 자기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데 비해 歐美의 노동자는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뿐 일정한 기능의 제공자로 한정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日本의 노동자가 비교적 자주적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비해 歐美의 노동자는 자기가 맡은 임무나 의무 이외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日本에서는 提案制度가 잘 활용되어 生産管理・品質向上 운동 등이 實效를 거두어 왔다.

(5) 왕성했던 國內外需要

戰後日本은 供給・需要 양면에서 모두 有利한 國際環境에 있었다. 대체로 平和가 계속되는 동안 敗戰으로 再武裝이 禁止된 日本은 防衛費負擔이 GNP의 1% 未滿이어서 다른 西方諸國의 平均 6%에 비해, GNP 5%를 擴大再生産을 위한 投資에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戰後 自由貿易主義가 팽배하고 資本・技術이 相互開放돼 있어 國際經濟活動이 자유로웠고 한편 敗戰에 의해 先進美國의 軍事占領下에서 土地改革, 財閥解體, 勞動의 民主化가 이룩되었을 뿐아니라 先進美國의 技術이 移轉되어 經營과 技術의 革新이 일어났다.

한편 需要面을 보면 戰後復興이라는 막대한 需要에 덧붙여, 韓國이나 越南에서 일어난 戰爭으로 막대한 軍事需要가 있었고 IMF·GATT體制下에서 商品, 資本, 技術이 自由로이 國境을 넘어 오가는 自由貿易主義가 팽배하여 世界交易量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國際經濟環境이었다.

이같은 海外需要에 덧붙여 日本은 他國에 비해 몇가지 有利한 自然條件 때문에 國內에 작지 않은 市場을 갖고 있었다. 國土의 크기는 韓國에 비해 약 3배, 土質은 우리 韓國에 비해 肥沃하고 雨量도 더 많아 水資源이 풍부하여 우리에 비해 옛날부터 農業生産性이 높았다. 좋은 自然條件과 2次大戰前의 帝國主義로 축적된 經濟的 遺産은 2次大戰에 의해서도 크게 파괴되지는 않아⁶⁾ 상당한 經濟的 水準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1946年 當時 1970年價格으로 1人當 國民總生産이 289 弗의 經濟水準인데다, 人口는 약 7千 6百萬명이었던 것이다.

이 작지않은 國內市場이 經濟가 復興, 成長하면서 더 방대한 市場으로 커간 한편, 비교적 平等한 所得分配은 大衆消費社會를 형성할 소지를 갖고 있었다. 高度成長과정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 都市와 農村의 二重構造 격차가 축소되면서 分配은 더욱 平等化되었다.

日本の 所得分配은 비교적 平等하여 <表 22>에서와 같이 低所得層인 第 1, 第 2 그룹이 全體所得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그 比率은 世界에서 제일 높다. 또한 「지니」係數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적어 他先進國과 비교하여 平等하다고 할 수 있다. 한 調査에 의하면 <表 23>과 같이 1979年 현재 男子·大卒新入社員年收에 비해 社長의 年收는 税金控除前을 비교하면 15倍, 税金을 除한 후에는 7.8倍밖에 안된다고 한다.

日本の 所得分配가 비교적 平等한 이유는 教育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 人種問題가 없다는 점, 財産所有가 비교적 平等하여 利子·配當·地代 등 財産所得差가 적다는 점, 엄격한 稅務行政으로 고액소득, 또는 유산 상속에

6) 戰爭被害率과 終戰當時의 生産力은 1章1節 參照.

〈表 22〉 所得階層別所得分配(税金控除後)

年	所得階層(1은 最低所得層, 10은 最高所得層)										「지니」 係數
	1	2	3	4	5	6	7	8	9	10	
호 주 1966~67	2.1	4.5	6.2	7.3	8.3	9.5	10.9	12.5	15.1	23.7	0.312
캐 나 다 1969	1.5	3.5	5.1	6.7	8.2	9.7	11.2	13.1	15.9	25.1	0.354
프 랑 스 1970	1.4	2.9	4.2	5.6	7.4	8.9	9.7	13.0	16.5	30.4	0.414
西 獨 1973	2.8	3.7	4.6	5.7	6.8	8.2	9.8	12.1	15.8	30.3	0.383
이탈리아 1969	1.7	3.4	4.7	5.8	7.0	9.2	9.8	11.9	15.6	30.9	0.398
日 本 1969	3.0	4.9	6.1	7.0	7.9	8.9	9.9	11.3	13.8	27.2	0.316
네덜란드 1967	2.6	3.9	5.2	6.4	7.6	8.8	10.3	12.4	15.2	27.7	0.354
노르웨이 1970	2.3	4.0	5.6	7.3	8.6	10.2	11.7	13.0	15.1	22.2	0.307
스페인 1973~74	2.1	3.9	5.3	6.5	7.8	9.1	10.6	12.5	15.6	26.7	0.355
스웨덴 1972	2.2	4.4	5.9	7.2	8.5	10.0	11.5	13.5	15.7	21.3	0.302
英 國 1973	2.5	3.8	5.5	7.1	8.5	9.9	11.1	12.8	15.2	23.5	0.318
美 國 1972	1.5	3.0	4.5	6.2	7.8	9.5	11.3	13.4	16.3	26.6	0.381
OECD 平 均	2.1	3.8	5.2	6.6	7.9	9.3	10.7	12.6	15.5	26.3	0.350

註：世帯數를 所得階層別로 10 等分하여 各階層이 占하는 있는 所得比率이다(全國民所得=100%)

資料：OECD 「Economic Outlook Occasional Studies」 1976 年 7 月

〈表 23〉 民間企業의 社長 및 新入社員(大卒・男子)의 年收

年	區 分	社 長 의 年 收 (圓)		新 入 社 員 (大卒・男子) 의 年 收 (倍)
		各年の 新入社員(大卒・男子)의 年收에 對한 倍率(圓)		
1927	税金控除前	165,000	110.0	1,500
	税金控除後	151,000	100.7	1,500
1963	税金控除前	6,082,000	23.6	257,900
	税金控除後	3,013,500	11.9	252,500
1973	税金控除前	15,676,700	19.0	825,500
	税金控除後	7,181,400	9.0	797,400
1979	税金控除前	22,018,000	15.1	1,462,900
	税金控除後	10,913,000	7.8	1,407,000

註：社長年收는 1963 年이전에는 資本金 5 億圓以上の 民間大企業의 社長을,

1973年 이후는 月 30萬圓以上の 社長을 對象.
資料: 日經濟勞動問題研究委員會報告, 1980.

대해 고액누진세율을 적용해 온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所得分配가 비교적 평등한 결과로 同種製品에 대한 수요의 量이 증가하여 大衆消費社會가 형성됐고 經濟成長단계에 따라 低價品에서 점차 高價品으로 폭발적인 耐久消費財품이 일어나 결과적으로는 高度成長의 기반이 되어 왔던 것이다.

트랜지스터·라디오에 이어 '50年代에 보급된 黑白 TV, 전기세탁기, 냉장고, 카메라에 이어 '60年代에는 자동차, 칼라 TV, 에어컨디셔너 등이 폭발적으로 보급된 것도 平等한 所得分配에 의한 大衆消費社會의 형성으로 國內市場이 고루게 넓었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6) 적절한 經濟政策과 市場經濟原理의 추구

日本經濟發展에 있어서의 政府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政府는 經濟活動의 主役을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에 맡겨 그 活力이 市場機能을 통해 발휘되도록 하는 「작은 政府」로 일관해 오면서 均衡의인 國民經濟發展을 위한 最小限의 產業政策의 추구, 그리고 때맞추어 발동되었던 효율적인 財政金融政策으로 日本經濟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왔다.

日本政府의 總支出은 '80年 현재 GNP의 約 30%로 美國을 除外한 他先進國의 43~44%에 비해 가장 적으며, 國民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도 21% 内外로 他先進國의 30%内外에 비해 적다. 公企業의 活動分野도 日本과 美國은 一般產業分野에서는 거의 없고 철도사업 등의 公益事業에 있어서도 유럽諸國에 비해 民間企業의 활동범위가 더 크다. 이에 반해 유럽諸國은 철도, 국제항공, 통신, 전선전화, 방송 등 公益事業은 거의 公企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一般產業까지 公企業의 活動분야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원칙적으로 民間主導型 市場經濟原理를 존중하는 반면 '50年代의 企業合理化政策, '60年代의 產業構造高度化政策이 보여주

는 바와같이 最小限의 範圍안에서는 時限的, 制限的으로 金融支援, 減稅措置를 통하여 發展段階에 있는 國內의 유치산업을 保護・育成・支援하여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法律(例: 企業合理化促進法, 機械工業振興臨時措置法, 電子工業振興臨時措置法 등 數百件의 法律制定・改廢)을 制定하거나 또는 集中生産體制의 整備, 投資・生産調整, 非關稅장벽의 설정등과 같은 行政指導로써 産業政策을 수행하였다.

政府에 의해 保護・育成・支援된 業種은 다음과 같다.

〈表 24〉 育成對象業種

年 代	業 種
1950年代	石炭, 鐵鋼, 電力, 纖維, 암모니아, 造船
1960年代	鐵道, 石油化學, 石油精製, 機械工業, 自動車, 合成고무, 纖維
1970年代	소프트웨어開發, 半導體, 海洋開發, 住宅産業, 電子計算機, 重機械開發
1980年代	에너지開發, 技術尖端産業(航空機, 宇宙, 파인・세라믹스, 原子力)

政府가 수행한 重要政策을 살펴보면 復興期의 石炭과 鐵鋼産業에 全資源을 傾注하여 추구한 傾斜生産方式, 일단 生産이 본궤도에 오르자 취해진 戰後인플레이收束을 위한 超緊縮豫算과 인플레이對策, 韓國戰爭에 따른 特需景氣와 그 후에 일어난 인플레이抑制을 위한 物價와 國際收支 對策, 自立經濟구축을 위한 企業合理화와 主要産業育成政策, 産業金融시스템의 展開, 에너지革命과 資源轉換政策, 새로운 高度成長을 밀받침할 技術革新政策, 조심스럽고도 대담한 貿易自由化政策과 輸出振興政策, 高度成長을 더욱 加速化한 所得倍增政策, 中小企業育성과 流通革命을 위한 諸施策 등 經濟政策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府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市場經濟原理를 심하게 歪曲시키지 않는 범위의 것이었다.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이 市場經濟原理에 의해 달성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日本經濟學界의 多數說이다. 香西泰

씨는 日本經濟가 결코 一部 엘리트經濟官僚의 計劃과 政策에 의해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必要에 따라 保護는 하되 最小限의 것이었고 끝이어서 競爭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資源배분이 歪曲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經濟・産業政策의 基本이었다.

그러나 日本이 이와같이 國內外的으로 市場經濟原理를 추구하면서 均衡 있는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經濟가 이미 國際적으로 相當한 水準의 國際競爭力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貿易自由化率이 83%였던 1962 年에 日本의 重化學工業比率은 이미 52.4%로서 西獨보다 높은 것이었다. 한편 비교적 많은 人口와 상당한 水準의 所得水準, 비교적 平等한 分配에 의한 大衆消費社會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큰 消費市場을 國內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國際競爭으로부터 보호되는 産業이라 할지라도 國內市場에서는 치열한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競爭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國內市場에서의 치열한 企業間競爭은 企業合理化運動을 자극하여 生産性を 向上시켜왔고 保護政策의 결합인 限界企業의 溫存이란 逆效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음 <表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主要業種의 日本國內 企業數는 歐美諸國에 비해 많은 편이다. 鐵鋼企業은 6 個企業으로 美國의 10 個, 西獨의 8 個企業보다는 數가 적지만 英國, 프랑스보다는 많고, 自動車・電算機製造業體는 유럽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는 유럽諸國보다 큰 國內市場을 갖고 있어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수 있는 크기의 企業이 複數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100 萬臺의 生産規模여야 規模의 經濟利益이 있다는 分析이 있는데 年間 500 萬臺 以上の 國內消費市場을 가진 日本은 100 萬臺以上을 生産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5 個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産業이 生産性を 急速히 向上시킬 수 있었던 것은 競爭的인 産業組

7) 香西泰「高度成長の時代」, 中村隆英「日本經濟」, 金森久雄「日本經濟をどうみるか」등을 參照.

〈表 25〉 主要業種の企業數

	日 本	美 國	西 獨	英 國	프랑스
鐵 鋼	6	10	8	1	3
自 動 車	11	4	4	3	3
電 算 機	6	6	1	1	1

註：1977年現在. 鐵鋼은 200 톤 이상의 生産企業, 電算機는 汎用컴퓨터 生産企業
資料：通産省 産業政策局 調査.

〈表 26〉 製造業의 倒産件數

	日 本	美 國
'78年	3,384件	1,013件
'79年	3,095件	1,165件

註：日本은 負債總額 1千圓以上の 倒産件數.

美國은 全倒産件數.

資料：日本東京商工リサーチ, 美國「던」社 調査

〈表 27〉 日本의 카르텔品目比率

(單位：%)

	品 目 數	生 産 額
1963年 3月末	19.2	28.0
1973年 3月末	17.6	14.4

註：鑛工業을 100%로 했을 때의 비율

資料：日本公正去來委員會「獨占禁止懇談會資料集」

〈表 28〉 集中度推移

(單位：%)

	資本金集中度	總資産集中度
1967年	35.5	26.0
1977年	27.3	22.6

註：上位 100 大企業의 集中度.

資料：日本公正去來委員會「獨占禁止懇談會資料集」.

織이 維持되어 激심한 企業間競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것은 倒産되는 企業이 많고, 카르텔品目の 比率은 그 數에 있어서나 生産額에 있어서나 減少하고 있으며, 上位企業에의 資本金이나 總資産集中度는 일관하여 低下되는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볼 때 政府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民間主導型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發展戰略의 추구였으며 최소한 이 原理를 歪曲시키지 않는 범위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3. 우리 經濟와의 比較

敗戰後의 日本이 高度成長을 통해 先進社會를 이룩한 要因을 分析한 것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첫째는 우리의 國民貯蓄率이 너무나도 낮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外資導入·依存에 의한 우리의 成長戰略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 할지라도 日本이 그들의 高度成長을 위한 投資財源은 어디까지나 日本國民의 근검·절약(Parsimony)에 의존해 왔다는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된다. 우리는 個人貯蓄率이 낮기 때문에 國民貯蓄率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成長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海外貯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오늘날의 막대한 外債를 안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60年代 前半에는 投資 중 海外貯蓄이 차지하는 比率이 國民貯蓄 비율보다도 높았다. '60年代 後半에 와서 그 比率이 비슷해졌다가, '70年代 前半에 國民貯蓄비율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 後半에 와서야 投資財源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貯蓄에 의해 조달될 수 있었다. 혹자는 貯蓄할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日本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1960年代 後半의 所得水準보다 훨씬 적은 所得水準이었던 때에도 우리와는 달리 높은 貯蓄率을 보여 왔던 것이다. 이같이 근검·절약한 資本이기에 資本效率의 극대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어 資本係數도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둘째로 日本과는 달리 우리의 成長은 勞動力의 增加에 의한 기여율이

많고 勞動生産性の 増加에 의한 기여율이 적다는 점이다. 이 勞動生産性の 増加야말로 賃金上昇의 源泉이며 經濟成長의 原動力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나 勞動生産性の 上昇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産業勞動者의 마음가짐·일하는 자세, 資本裝備·設備·技術 등을 비롯하여 企業의 성격·經營·勞使關係에 이르기까지 모든 關聯要因의 綜合的인 結果이다. 어쩌면 文化的 社會的 政治的 結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어진 與件속에서도 日本의 勞動生産性上昇率과 그 要因을 살펴볼때 우리가 더 높은 生産性を 올릴 수 없다고 단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産業勞動者의 自發的이고 自主的인 生産性向上運動에의 참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이야말로 日本의 高度成長要因을 分析함으로써 얻은 貴重な 敎訓이라고 할 것이다. 産業이 필요로 하는 敎育과함께, 調和를 이루며 協力하는 産業勞動者가 양성되도록 우리의 敎育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産業勞動者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발해 갈 수 있도록 勞使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편 産業勞動者는 生産性向上의 범위안에서 賃金上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企業을 발전시키려는 자발적인 의욕에 가득차 있는 것인가. 물론 日本은 우리와 다른 文化와 與件 속에서 비교적 좋은 條件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文化와 與件속에서도 生産性を 向上시킬 수 있는 점은 허다한 것이다.

셋째로 技術進步·革新이다. 日本은 先進技術을 導入·利用하는 가운데 선진기술을 吸收·應用·開發해 갔다. 우리는 導入技術을 利用하기만 하고 이를 吸收應用, 開發해가는데 비교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技術進步·革新에 투입된 人力도, 資本도 많지 않았고 그 以前의 段階인 生産工程의 合理化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 많은 資本財와 施設의 輸入에도 불구하고, 國産化를 위한 우리의 技術開發노력은 부족했다. 한편 高度의 「技術」은 그만 두더라도 우리의 「技能」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高度의 技術開發의 밑바탕은 「高品質」 「原價節減」에 대한 평가에서 마련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品質向上, 原價節減에 對한 努力은 충분했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日本の 高度成長의 많은 부분이 技術의 進歩에 의해 이루어진데 비해 우리의 經濟成長이 저렴한 勞動力의 增加와 주로 外債에 의한 資本增加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技術寄與率이 적었다는 점에 우리는 注目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技術이란 高度의것, 하드 웨어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技能的인것・品質・디자인등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技術의 進歩・革新도 단순한 것이 아니다. 技能工, 技術者에 대한 社會的評價와 대우에서부터 教育과 投資, 그리고 우리실정에 맞는 技術政策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빈약한 자원하에서 그래도 비교적 질이 높고 풍부한 人的資源을 開發함으로써 技術進歩・革新에 의한 經濟成長戰略을 추구해가는데 있어 日本의 經驗은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輸出에 못지않게 需要를 지탱주는 것은 國內需要이다. 國內市場이 基本이 되지않으면 그 産業은 건전한 發展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을 日本의 高度成長경험에서 보아왔다. 日本의 輸出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 즉 輸出依存度는 12~13%水準이고 나머지는 國內需要였다. 日本의 國內需要는 우리와는 달리 이미 상당한 水準에 오른 國民所得과 우리의 3倍以上인 人口라는 基盤위에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平等한 所得分配 역시 중요한 要因이었다는 것을 보아왔다. 人口와 經濟水準은 주어진 與件이라해도 우리의 경우 外貨가 그다지 소요되지 않는 有効需要를 자극할 방법은 없을 것이며 實名制度實施를 통한 所得分配政策으로 國內市場의 底邊擴大같은 方案은 없을 것인가. 이제는 世界的 景氣침체로 日本의 高度成長期와는 달리 全世界의 需要減少로 우리의 輸出에 의한 需要도 限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有効需要創出し 급한 것 같다.

다섯째로 日本의 高度成長要因중의 하나가 몇 個人의 企業支配에 의해서가 아니라 經營者를 비롯한 全從業員의 協調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 우리의 경우 日本에 비해 아직도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지 않은채 資本家の

支配가 강한 것이 사실인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文化・與件・慣行・行動樣式 그리고 發展段階 등 우리의 與件을 감안한 韓國의企業과 企業家精神, 그리고 經營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로, 日本은 民間主導型 市場經濟原理를 추구하면서도 적절한 政府의 역할이 高度成長의 중요한 要因이었는데 과연 우리의 與件에서 우리 政府가 적절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우기 政府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 資源配分을 歪曲시키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이다. 日本의 경우 全體政策金融의 比率은 設備投資總額의 平均2.5%에서 0.8%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의 지나치게 높은 政策金融比率은 市場經濟原理에 맞는 것이며, 한편 資源配分을 歪曲시키고 있지는 않는것인지, 自由化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신중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保護・育成・支援의 對象産業은 日本經濟의 實力에 맞는 最小限의 것으로, 그 品目을 공작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등과 鐵鋼, 石油化學, 합성섬유등 15個内外의 品目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輸入自由化는 하되, 國民經濟를 위해 꼭 필요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保護・육성・지원해야 하고 또 그 支援은 어디까지나 時限附制限의인 것으로서 市場經濟原理의 競爭과 價格메카니즘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 日本經濟의 高度成長要因을 分析하고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찾아보았지만, 日本經濟 高度成長要因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單純化하여 分析함으로써 그 本質의인 면과 底邊에 깔려 있는 어두운 점에 관해서 논급하지 못했다는 점을 附記해두고자 한다.

사실 오늘날의 日本經濟는 個人消費가不振한 가운데 個人貯蓄率이 높기만 해 도리어 經濟成長의 큰 沮害要因이 되고 있으며, 勞使關係가 좋다는 것도 相對的 概念일뿐 中小・零細企業은 終身雇傭制의 慣行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 아니라 勞使關係도 원만하지 않은 면도 있다. 또한 日本의 總

은 勞使關係는 어디까지나 社員인 從業員과의 關係일뿐 수많은 「아르바이트」라고 불리우는 臨時雇傭員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한편 高度成長下에서 가능했던 日本의 勞使慣行은 이제 오히려 企業經營의 장애 요인이 되고있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日本의 高度成長을 촉진해온 企業經營方式은 日本만의 特色이 아니고 歐美의 成長企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現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비교적 所得平準化돼 있다는 말은 地下經濟를 감안하지 않은 分析이고, 農業保護政策에서 보는 바와같이 失敗한 政策도 많다. 여기서 우리는 日本의 高度成長要因을 單純히 直輸入한다해서 곧바로 같은 效果를 거둘 수는 없다는 점에 留意해야 하겠거니와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現實을 감안한 구체적인 韓國의 經濟成長戰略을 세워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Why the Japanese Economy Grew So Fast

Cho, Kyu-h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Japanese economy has grown so fast since World War II.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factor inputs in aggregate—(1) labor and its productivity, (2) capital and its quality, (3) technology—and why they were so successful.

According to the Harrod-Domar equation, the growth rate is represented as the multiplication of the savings-ratio—alternatively, investments-ratio—and the inverse of the capital-output ratio, that is, $g=s/v$. The capital-output ratio of Japan before the 1970's was below 2, much lower than the general level of 3 in industrial countries.

Such a low capital-output ratio reflects the impressively rapid advances in productivity. Japan had already, at the end of World War II, a highly educated and skilled labor force and substantial managerial, organizational, scientific, and engineering skills capable of rapidly absorbing and adapting foreign advanced technology. The Japanese made every effort to learn, commercialize, and improve upon imported technology as well as to develop and improve upon their own technology. Their efforts to raise productivity evolved from the implicit consensus that the top national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conomic growth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II.

The rapid growth of productivit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a very high rate of investment in equipment and other directly productive capacity. The Japanese high investment rate is a most impressive investment performance; no other industrialized nation has voluntarily plowed back such a high share of output into further

economic expansion.

One important cause of this investment performance was widespread business and managerial optimism about the growth of the economy stemming from favorable condi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huge domestic demand from a population of nearly 100million, and the improvement of general standards of living caused by rapid growth and relatively eve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The other important cause of Japan's high investment rate was its high and rising savings rate. In genreal, Japan's investment was financed by domestic savings. The corporate sector also plowed back the major share of its profits. Even so, firms have to rely heavily on external finance because of their high investment demand. The individual savings rate in Japan was about triple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frugality, but much of it can be explained by the parsimonious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eople.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of the workplace in Japan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The individual Japanese enterprise is markedly distinguished from Western enterprises by the degree to which company and workers, company and union, and different levels of management and workers are bound together. It is firmly believed in Japan that there is a fundamental concord of interes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and that the welfare of an individual is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progress of his company. The peculiarities of the Japanese workplace are reinforced by the lifetime employment system, a reward system based upon age and seniority.

Final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layed a great role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expans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only shaped overall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ith economic growth as a basic objective, but has also instituted a wide range of governmental measures, including direct controls and subsidies as well as other means of direction and suasion, to allocate the national

resources to these economic or industrial sectors that would provide the greatest returns in terms of growth. This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nevertheless, been limited in order not to prevent the economy from going forward to very rapid a pac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careful to retain the advantages of the market system by encouraging competition among domestic producers.